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 병 철 의원



“우주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성공적 육성으로
과학산업도시 대전 만들어야”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이 병 철 의원

●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대전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 대전을 꿈꾸며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소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첨단과학도시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최대의 연구단지인 대덕특구가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 주었고 올해로 그 조성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이라는 매머드급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덕특구의 존재만으로 ‘대전이 과학도시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2012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를 근거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자체에 연구개발특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강소특구가 28개 지자체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이 과학도시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운해 하거나 못마땅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제 과학도시가 아니라 과학산업도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산업도시는 과학연구의 인프라만 가지고 있는 과학도시를 넘어서서 그 연구의 성과를 사업화하여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활기차고 잘사는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작년 민선 8기 취임사에서 “대전을 산업과 기업 유치 중심의 글로벌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포부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약속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산업과 나노·반도체산업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육성하여 과학 산업도시 즉,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위성 및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과 전남만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께서 대전을 포함한 3각 체제의 필요성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피력하는 노력 끝에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최종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시장께서 나노·반도체산업을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 하겠다는 비전 선포 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힘을 보태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를 필두로 반도체산업의 육성에 일조하고자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가능한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산업특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학산업도시 대전을 위한 추진현황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 및 궁금한 점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 전망 관련입니다.

대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환경에 있어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우수한 R&D 역량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나노종합기술원과 에트리 등 많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있고 반도체 관련 우수한 인재 배출의 역량을 가진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UST 등 많은 관련 학과와 대학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 전국 평균보다 많아서 산업체 현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전은 대기업이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이번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공모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나 LG이노텍, SK실크론 같은 소재·부품 기업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와의 경쟁에서 대전시가 다소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수한 R&D 역량을 내세워 4차산업특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은 광주로 넘어가고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산으로 넘어가는 등 유치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과학산업도시로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경쟁에서 대전시의 어떠한 강점을 내세워 다른 경쟁 지자체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질문입니다.

우주산업은 첨단IT기술, 기계공학 등 응용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대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주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우리 대전시에 입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 관련 기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에서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 미래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대전 우주전문 인재육성 대책 등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세부사업계획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인프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의 핵심은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 건립이 될 것이고 3대 추진전략 중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은 이 목표를 필두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남과 전남 역시도 비슷한 성격의 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는 완성되었지만 사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선정결과를 보면 전남과 경남의 인프라 사업인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만 있고 대전시의 인프라 사업은 예타 결과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이번 예타 선정 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는 별개인 것으로 3축의 사업은 상반기 내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대전시가 3축 체제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만큼 경남, 전남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추진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해도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지역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부지 확보, 인력양성 기관과의 연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의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과학산업도시 대전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산업과 우주산업은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전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서는 과학산업도시 대전을 위한 우주산업,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전망 및 향후대책,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의 평상시 지론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

중앙정부에 기대지는 않는다.

우리가 준비되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늘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이유도 바로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 나노·반도체 그리고 방위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이 4대 전략산업을 대전시의 경제를 키우는 전략산업으로 이미 선정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유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26일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신청을 170만 평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와 발맞춰서 만약에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하고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대전이 아주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볼 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반도체 연구기관, 반도체 출연연구기관이 9개가 있고요, 또 관련 대학이 15개가 있고 반도체 국가 연구장비 인프라 43%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전은 반도체 연구기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이 용이한 도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반도체 관련 국내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노력 중인데 이 자리에서 보안상 밝힐 수 없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대기업하고 이미 상당히 깊은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전문가들도 대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대전반도체산업특화단지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고요.

관내 반도체기업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나노반도체종합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고,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대전에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에서 대전지역에 반도체 부품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 부품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부품을 개발해놓고도 세계 반도체기업들에 납품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인증해 줄 테스트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장 되고 반도체장비 테스트베드, 특히 부품을 테스트해주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역량을 더 강화해서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산 · 학 · 연 융합연구 계획인데 특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를 포함한 19개의 지역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생각이고요, 특히 연구개발 부분과 인력공급이 있는데 도시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구군하고 핵심연구인력 그리고 생산인력 이렇게 공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역대학 전체와 또 폴리텍대학 같은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대학들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역량을 하여튼 모아서 특화단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선도기업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도, 특히 앵커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제1등 반도체설계 회사와 상당히 지금 깊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카이스트를 포함한 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산하의 나노중기원 등을 포함한 9개 기관과도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위해서 저희가 긴밀히 협력하려고 지금 뛰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여쭙 보셨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사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경남하고 전남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했다는 소식을 시장 취임해서 얼마 안 지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봤더니 사실은 민선 7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전남하고 경남은 용역도 하고 무엇을 할 건지 준비를 충분히 해서 과학기술부에 제출을 했는데 대전은 사실은 이미 서류 하나 낸 게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지금 항우연을 포함한 우주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이든 다 대전에서 핵심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을 키우는 데 대전이 빠지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현황파악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무수석, 경제수석, 과학기술부장관, 차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다 했습니다.

해서, 대전을 빼놓고 어떻게 우주산업 육성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 경제과학부시장은 과기부에 가서 피켓도 하루 들고 있을 정도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전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전이 연구·인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대전이 한 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남이나 경남에서도 3축이 가 있습니다만 많은 핵심 연구인력이 대전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또 상당히 전남이나 이쪽에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저희의 강점을 잘 살려서 대통령께서 저한테 우주 관련 기업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대거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을,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전투자청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우주산업 방산기업들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한 자본을 사실 대기 위한 이런 역할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우주 전문 산·학·연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기획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로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국가사업 규모의 인프라 조성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나아가서 지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우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현재 우리 시도 수립하고 있고요.

시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우주기업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혁신기반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그리고…….

저도 항상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네 가지 전략산업을 저희가 적극 유치하도록 또 육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우리 공직자들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4대 전략산업을 키워서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경제규모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